



일반부문 우수작

<무한도전>, 한국형 리얼 버라이어티의 진화

권명국

1. 프롤로그

“이 작품에 대한 최고의 비평은 바로 다음 작품이다.” 미국 현대미술의 대표적인 작가로 손꼽히는 잭슨 폴록(Jackson Pollock)은 이렇게 말했다. <무한도전>(MBC)에 관한 비평을 시작하며 잭슨 폴록의 말을 인용하는 것이 자못 거창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으나, 지난 1년간 <무한도전>의 창조적 진화를 주의 깊게 지켜본 시청자라면 결코 지나친 인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무한도전>은 이미 2007년부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간판 예능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무한도전>은 어떤 하나의 틀로 규정되는 것을 거부하며, 현재진행형의 진화를 거듭해나가고 있다. 시대의 흐름을 읽기 위해서는 <무한도전>을 봐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한도전>은 동시대적 화두와 매체 환경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비평은 지난 2009년 5월에서 2010년 6월까지의 기간을 중심으로 <무한도

전>의 프로그램 제작 방식과 내용 전반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한국형 리얼 버라이어티의 발전 양상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하이브리드를 통한 장르의 진화

<무한도전>이 표방하고 있는 리얼 버라이어티라는 포맷은 일정 부분 미국과 일본의 예능 프로그램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탄생한 것이 사실이다. 고정된 포맷을 유지하지 않고 매회 다른 기획을 선보인다는 점에서는 <가키노쓰카이>와 <링컨> 같은 일본의 버라이어티쇼의 영향을, 패션·디자인·모델·요리 등 전문 분야에 도전하는 과정을 다루었다는 점에서는 <프로젝트 런웨이>와 <헬스 키친> 같은 미국의 리얼리티쇼의 영향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무한도전>은 단순한 베끼기나 아이템 차용에 그치지 않고 창조적 모방을 통해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한도전>의 관심은 어디로부터 무엇을 차용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떤 식으로 변주하는가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무한도전>은 요즘 사회 각 분야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하이브리드적 사고방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하이브리드적 사고방식은 융합적인 사고 체계로서, 기존의 영역이나 장르를 초월하여 서로 빼고, 보태고, 옮기고, 중첩시켜 영역과 장르를 잡종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순종 결합만을 고수하다 보면 오히려 창의적이고 건강한 사고가 창출되기 어렵고 상투적인 관습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작금의 방송 환경과 시청자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기존의 허울 좋은 전문성이라는 명제를 뛰어넘어 새로운 영역과 장르를 개척할 필요가 있다. 하이브리드적 사고는 이와 같은 순종 결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요즘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무한도전>의 하이브리드적 사고는 크게 세 가지 경향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타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포맷과 아이템을 적극적으로 차용하는 패러디적 경향이다. 이것은 이미 기성적으로 존재하는 즉, 레디메이드 아이템(ready made item)을 선택, 자신만의 색을 입혀 새롭게 탄생시키는 재창조의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2009년 11월에 방송된 ‘식객 특집’ 편을 들 수 있다. 이 특집은 미국 FOX 채널의 인기 프로그램인 <헬스 키친>의 포맷과 허영만 작가의 만화 『식객』의 스토리를 결합한 기획으로 볼 수 있다. 뉴욕의 중심 맨해튼의 레스토랑에서 실제 뉴욕 시민을 대상으로 벌인 멤버들의 한식요리 대결은 리얼 버라이어티의 묘미와 요리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동시에 살린 좋은 예로 볼 수 있다. 단순히 편을 가르고 요리 대결을 벌인다는 <헬스 키친>의 발상에만 머무르지 않고, 한식의 세계화라는 글로벌한 주제 의식을 이끌어낸 것은 <무한도전>이 새롭게 이뤄낸 성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무한도전>의 하이브리드적 사고를 보여주는 두 번째 경향은 리얼 버라이어티와 다큐멘터리의 결합이다. <무한도전>은 기존의 리얼 버라이어티가 지나치게 강조해온 실재성과 현장성이라는 표면적인 리얼함에서 벗어나, 기록성과 진정성이라는 다큐멘터리 장르 본연의 핵심을 예능 프로그램 안으로 끌어들었다. 이와 같은 기획의 시발점은 2007년 11월에 방송된 ‘댄스 스포츠 특집’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무한도전> 멤버들이 약 80일간의 연습을 거쳐 슈퍼코리아컵에 출전하는 과정을 그린 이 특집은 긴 시간에 걸친 기록과 대회에 임하는 멤버들의 진정성이 결합되면서 시청자와 언론의 호평을 받았다. ‘댄스 스포츠 특집’ 편의 성공으로 <무한도전>에서 다큐멘터리적 경향이 더욱 강화되었고, 특히 ‘뽕슬레이 특집’ 편부터는

이와 같은 경향의 기획이 <무한도전>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되었다.

지난 1년 동안 방송된 기획 중에서 다큐멘터리와의 융합적 사고가 돋보인 편으로는 단연 2010년 1월에 방송된 ‘복싱 특집’ 편을 들 수 있다. 이 특집에서 참신했던 부분은 <무한도전> 멤버들이 직접 도전의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기획적 관습에서 벗어나, 한일 양국의 소녀 복서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다는 점이다. <무한도전> 멤버들이 도전의 주인공에서 서포터로 역할을 바꾸어, 소녀 복서들의 대결과 눈물겨운 그녀들의 인생 이야기를 전달하는 모습이 신선하게 다가왔다. ‘복싱 특집’ 편은 승자와 패자, 한국과 일본 같은 대립적 구도를 떠나 두 소녀의 눈물겨운 도전을 그린 한 편의 휴먼 다큐멘터리로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무한도전>의 세 번째 하이브리드적 경향은 리얼 버라이어티와 영화의 결합이다. 이 경향의 기획이 최초로 시도된 것은 2008년 여름 특집으로 방송된 ‘돈가방을 갖고 튀어라!’ 편이었다. 당시 <무한도전>은 리얼 코믹 액션 느와르라는 장르로 이 특집을 소개했는데, 사실 이 특집을 영화적 장르로 명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당시에는 멤버들의 캐릭터도 확실하지 않았고, 플롯의 완성도도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9년 여름 특집으로 방송된 ‘여드름 브레이크’ 편에서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웬만한 할리우드 영화보다 더 재미있다는 호평을 이끌어냈다. ‘여드름 브레이크’ 편에서 업그레이드된 점은 캐릭터와 플롯이 탄탄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유재석과 정형돈에게 형사의 캐릭터를 부여하고, 박명수, 정준하, 노홍철, 전진에게 탈옥수 캐릭터를 부여하면서 캐릭터의 구체성을 강화했다. 플롯에서도 단계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하는 장애물과 클라이맥스를 구체적으로 설정해놓음으로써 스토리가 명확하게 전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의 영화와 비교해서도 ‘여드름 브레이크’ 편만의 독창적인 재미 요소를 찾아볼 수 있다. 제작진은 개방적인 플롯 안에서 캐릭터의 자유로운 행동과 판단, 즉 캐릭터의 창작성을 허용했고 그로 인해 스토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시청자들이 쉽게 예측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심지어 제작진들조차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스토리가 전개되기도 했다. 노홍철이라는 희대의 사기꾼 캐릭터가 스토리를 좌지우지하면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결말이 연출되었다. <무한도전>은 기존의 영화적 완성도와 짜임새에 얽매이지 않고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영화적 재미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무한도전>이 최초로 개척해낸 장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신선한 시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장기 프로젝트를 통한 제작 방식의 진화

불과 2, 3년 전 만해도 우리나라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장기 프로젝트라는 개념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의 예능 프로그램이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면서 스타와 이슈만을 주요 소재로 다룬 데에 있다. 스타급 게스트가 출연했을 경우에는 단 몇 시간 촬영한 분량을 억지로 늘려서 2회 이상 편성하는 예능 프로그램들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무기력한 창의성과 게으른 기획력으로는 갈수록 높아지는 시청자들의 눈높이를 만족시킬 수 없다.

<무한도전>은 장기 프로젝트를 통해 예능 프로그램 제작 방식의 고정 관념을 깬다. 보통의 예능 프로그램은 한 주 찍고, 한 주 방송하는 식의

직선적인 패턴으로 제작되지만, <무한도전>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아이
템을 촬영하고 방송하는 식의 입체적인 패턴으로 제작된다. 쉽게 말해,
<무한도전>은 엄청난 창의력과 살인적인 스케줄이 요구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일 년이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 A와 세
달이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 B, 그리고 단 하루 만에 촬영이 종료되는
단기 프로젝트 C가 한 주 안에 모두 촬영된다는 뜻이다. 장기 프로젝트의
경우 사전 제작으로 만들어지며,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시점 혹은 중간
지점에서 특집으로 편성된다. 단기 프로젝트는 장기 프로젝트 사이에 편성
되면서 제작진과 멤버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주는 역할을 한다. 즉,
<무한도전>은 단기 프로젝트 중심이 아닌, 장기 프로젝트 중심으로 제작
패러다임을 바꾼 최초의 예능 프로그램이다.

<무한도전>에서 장기 프로젝트의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009
년 5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방송된 총 54회분을 대상으로 살펴보았을
때, 최소한 장기 프로젝트로 제작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편이 약 23회로
전체의 절반 가까운 수를 차지했다. 방송된 횟수가 아닌 아이템별로 따져보
면 ‘올림픽대로 듀엣가요제 특집, 2010 달력 만들기 특집, 벼농사 특집,
식객 특집, 복싱 특집, 다이어트 특집, 오마이텐트 특집, 도전 달력모델
특집’ 총 8개의 장기 프로젝트가 진행된 것을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장기 프로젝트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편으로는 ‘달력
만들기 특집’ 편과 ‘벼농사 특집’ 편을 꼽을 수 있다. ‘달력 만들기 특집’
편의 경우, 매월 한 번씩 정기적으로 촬영이 이뤄지며 월마다 다른 콘셉트를
정하여 멤버들이 직접 달력사진을 촬영한다. 하지만 방송분에는 총 12개월
의 시간이 한꺼번에 나타나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시시각각 변하는 계절과
멤버들의 의상을 감상할 수 있다. ‘벼농사 특집’ 편은 멤버들이 1년 동안

직접 벼농사를 짓는 과정을 보여준, 그야말로 장기 프로젝트의 진수라고 평가할 수 있다. 논갈기, 퇴비 뿌리기, 볍씨 뿌리기, 모내기, 추수까지 1년의 시간을 담은 ‘벼농사 특집’ 편은 단순한 일일 체험식의 접근이 아닌 1년 농사라는 큰 스케일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무한도전>은 장기 프로젝트를 통해 예능 프로그램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시청자들에게 일회적인 웃음이 아닌 오랜 시간 공이 들어간 땀이 깃든 웃음을 선사했고, 다양하고 입체적인 시간을 경험하게 해주었다. <무한도전>이 장기 프로젝트를 위해 도입한 사전 제작 시스템은 완성도 높은 예능을 만들기 위한 제작 방식의 전범을 제시했고, 장기적 안목의 기획접근 방식은 예능계 전반의 소재 확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4. 상호 소통을 통한 쌍방향성의 진화

웹 2.0 시대가 개막된 이후 우리나라 방송계도 시청자들과의 쌍방향성을 중요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수박 겉핥기식의 접근에 그치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시청자의 참여를 이끌어낸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 의미에서 <무한도전>이 보여주고 있는 시청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한도전>은 시청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동시대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읽고, 그것을 방송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시청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이টেماً로 채택하기도 하고, 반대로 시청자들에게 역할을 부여해 제작에 참여시키기도 한다. <무한도전>은 시청자들과 함께 만들어어나가는 참여 방송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무한도전>과 시청자들의 상호 소통에 관한 상징적인 사건으로는 올해 초 화제가 된 ‘사과송’을 들 수 있다. ‘식객 특집’ 편이 방송된 이후 정준하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 시청자들의 비판 여론이 일자, 제작진은 바로 그 다음주 방송에 멤버들이 직접 부른 ‘사과송’을 내보냈다. 당시 이를 본 시청자들은 <무한도전>의 즉각적인 대응에 만족을 표하며 오히려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소통을 통해 여론을 반전시킨 것이다. 당시 이 사건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도 시청자들의 비판을 외면했던 다른 프로그램들의 무성의한 대응과 대비되어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또한, <무한도전>은 시청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공익적 성격의 캠페인을 만들어냈다. 한 해 동안 활동하면서 제작한 달력, 음반, 사진 등의 판매 수익금을 기부하는 캠페인을 팬들과 함께 몇 년째 이어가고 있다. 이 캠페인은 팬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로 해마다 더욱 활성화되면서 <무한도전>의 전통으로 자리매김했다. 이것은 예능이 단순히 웃고 즐기는 프로그램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예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시청자들과의 상호 소통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내부에서 이뤄지는 상호 소통 또한 주목해볼 만하다. 다른 예능 프로그램과 비교해 유독 <무한도전>에서는 멤버들끼리 기획회의를 하는 장면이 많이 방송된다. 이는 제작진과 출연진의 경계를 허물고 다 같이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9년 5월에는 박명수가 직접 기획한 ‘박명수의 기습공격 특집’ 편이 한 회로 방송되기도 했다. 또한 2010년 6월에 방송된 ‘자리분양 특집’ 편에서는 멤버들끼리 자리의 위치를 새롭게 정하며, 메인 MC인 유재석 위주로 방송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기도 했다.

5. 에필로그

오늘날 다양화된 매체 환경과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방송 프로그램의 생명력이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변화를 게을리하거나 독창적인 스타일을 개발하지 못하면 시청자들은 금방 외면해버린다. 리얼 버라이어티 역시 마찬가지다. 창조적 진화 없이 자극적인 소재로만 승부하거나 상투적인 진행만을 반복하는 지금의 모습으로는 오랫동안 시청자들에게 사랑받을 수 없다. 리얼 버라이어티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랑받기 위해서는 매너리즘을 뛰어넘어 이제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과 장르에 도전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무한도전>이 지난 1년 동안 보여준 변화와 시도는 한국형 리얼 버라이어티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의 좋은 예로 볼 수 있다. <무한도전>은 하이브리드적 사고방식을 통해 리얼 버라이어티의 장르적 외연을 넓혔고, 장기 프로젝트를 도입하여 제작 방식의 패러다임을 전환했으며, 개방적 소통을 통해 프로그램 내외부적으로 쌍방향성을 증진시켰다. 즉, 제작 방식, 포맷, 아이템과 같은 제작 전 분야에 걸쳐 새롭고 독창적인 자신만의 브랜드를 개발해낸 것이다.

“이 작품에 대한 최고의 비평은 바로 다음 작품이다.” 다시 잭슨 폴록의 말로 돌아와보자. 예술 작품이든 혹은 방송 프로그램이든 현재로서 완벽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미래적이고 생산적인 관점으로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에 도전해나갈 뿐이다. <무한도전>의 지난 1년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한국형 리얼 버라이어티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